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원작. 몰리에르

스카팽:

Les Fourberies de Scapin



국립극단

국립극단 스카팽 *Les Fourberies de Scapin*

원작 몰리에르 Molière

각색·연출 임도완

일정

2019년 9월 4일(수) - 9월 29일(일)

장소

명동예술극장

제작

(재)국립극단



작가소개

2

각색·연출가 인터뷰

서서히 드러난다, 오래 남을 웃음을 위해 ■ 남궁경

4

줄거리

8

인물관계도

10

출연진

12

작품 이해돕기—1

몰리에르, 웃고 나서 알게 하다 ■ 임선옥

18

작품 이해돕기—2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스카피노 ■ 김찬자

22

무대 디자인 스케치

26

연습 스케치

28

스태프 프로필

30

만드는 사람들

31

몰리에르

Molière. 1622~1673.

본명. 장-밥티스트 포클랭 Jean-Baptiste Poquelin



몰리에르_몰리에르의 초상. Pierre Mignard의 유화, 17세기.

프랑스 '희극'의 시작, 최고의 극작가.

비극만이 예술이라 평가받던 17세기,
풍자와 위트가 가득 찬 공연으로 연극사를 바꾸고 사회를
뒤흔들며 프랑스 '희극'의 출발점이라 평가받은
최고의 희극 배우이자 극작가.
지금 이 순간에도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이자,
전 세계 많은 극단에서 공연되는 작가로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 받고 있다. 또한 그의 이름을 딴 '몰리에르상'은
세계 연극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몰리에르상 Molière Award

1987년부터 매년 4~5월에 열리는 시상식으로 일명 '몰리에르의 밤'이라고 불린다. 프랑스 연극사에 비해 다소 늦게 제정된 몰리에르 어워드는 장-미셸 루지에르와 제롬 위로와 같은 사립 극장 대표와 비평가들이 주도해 만들어졌고, 2004년 이후에서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극장 대표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연극 관련 시상식과 비슷하게 남녀 주(조)연상, 남녀신인상, 올해의 연극(공연)상, 최우수 작가상, 최우수 연출상, 무대디자인상 외에 1988년에 만들어진 '최우수 지방분권 공연상(몰리에르 지역 연극상)'은 파리가 아닌 지역에서 상연되는 공연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한다. 이 외에도 '몰리에르 예상치 못한 상', '최우수 원맨쇼 상' 등 간헐적으로 기발한 이름의 상을 시상하기도 한다. 2006년부터는 모든 부문에 '최우수'라는 표현 대신 '몰리에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몰리에르상이 만들어질 당시 모든 프랑스 연극인들에게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까닭이다.

출처: 매거진 [더뮤지컬] 81호 '프랑스 대표하는 연극 공연상, 몰리에르상'

주요작품 희곡 <날아다니는 의사> <덤벙쟁이> <사랑의 원한> <사랑에 빠진 박사> <우스꽝스러운 재녀들>
<아내들의 학교> <타르튀프> <사랑이라는 의사 인간혐오자 멜리세르트 앙피트리옹>
<수전노> <푸르소냐크 씨> <멋진 연인들 서민 귀족> <프시케> <스카팽의 간계> <상상병 환자> 외

주요연보 1622 파리 출생
1640 오를레앙에서 법률학 공부
1644 ‘몰리에르’라는 예명 사용하기 시작
1645 운영하던 극단의 빚으로 교도소에 투옥, 이후 파리를 떠나 지방 유랑생활 시작
1661 루이 14세로부터 인정받아 죽을 때까지 팔레 르와이얄 극장의 사용을 허가
발레-코미디『웨방꾼들』이 큰 성공을 거두며 파리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다지기 시작
1662 아르망드 베자르(Armande Béjart)와 결혼
1666 루이 14세의 죽음으로 2월까지 극장 운영 불가
1671 『프시케』『스카팽의 간계』 등 발표
1673 『상상병 환자』 공연 중 쓰러진 뒤 집에서 사망
몰리에르 극단은 ‘테아트르 드 마레’ 극단과 병합
1680 몰리에르의 정신을 계승한 ‘코메디 프랑세즈(La Comédie-Française)’ 창립



코메디 프랑세즈 La Comédie-Française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극장으로, 자체 극단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극장이다. 1680년에 설립돼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극장은 몰리에르의 이름을 따서 ‘몰리에르의 집(La maison de Molière)’이라고도 한다. 루이 14세는 당시 분열돼 있던 마레 극장과 부르그뉴 왕립극장을 통합하여 코메디 프랑세즈를 개관했다. 이후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1789년, 배우들이 수감되고 극장이 문을 닫았으나 1799년 새 정부가 재개관을 승인하였다. 극장은 1799년 이래 현재까지 건축가 빅토르 루이(Victor Louis, 1731~1800)가 설계한 건물을 공연장으로 사용한다. 고전극 중에서도 비극 상연을 의무로 하지만 근대의 명작도 소개한다. 오늘날 극장은 3,000개가 넘는 상연 목록을 갖고 있다. 설립 이래 극단에 등록된 작가는 무려 1,000명 이상이며, 그 중 가장 많이 공연된 작품은 단연 몰리에르의 작품이다. 총 33,400여 회의 기록을 갖고 있는 몰리에르의 작품 중에서도 1위는 <타르튀프>, 2위는 <수전노>, 3위는 <상상병 환자>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출처: 두산백과 ‘코메디 프랑세즈’ 외

.....임도완



각색·연출—임도완 Im Do-wan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 〈보이책〉 〈한여름 밤의 꿈〉 〈카프카의 소송〉
〈휴먼코메디〉 〈크리스토퍼 논란 클럽〉 〈죄와 벌〉 〈하녀들〉 〈왕벚나무 동산〉
〈장님들〉 〈그놈이 그놈〉 〈타이피스트〉 〈스펙트럼 2001〉 〈두문사이〉 외

뮤지컬

〈이른 봄 늦은 겨울〉 〈기발한 자살여행〉 〈벽을 뚫는 남자〉 외

창작가무극

〈가운: 세상의 시작〉 외

수상

2018 2015 FAD Sebastia Gasch Awards 'Joan German Schroeder'
International Applause 〈Les Bonnes(The Maids)〉
2007 월간 한국연극 '올해의 공연 베스트7' 선정 〈보이책〉
2007 한국공연예술협회 '올해의 예술인상' 수상
2007 에딘버러 페스티벌 '헤럴드 엔젤어워드' 수상 〈보이책〉
2007 에딘버러 페스티벌 '토탈씨어터 어워드' 피지컬 씨어터 부문 수상 〈보이책〉
2007 에딘버러 페스티벌 'BBC 올해의 Top 10' 선정 〈보이책〉
2006 제42회 동아연극상 새개념 연극상 수상 〈왕벚나무 동산〉

서서히 드러난다,

오래
남을

웃음을 위해

진행·정리 남궁경_자유기고가

남궁경 이번 작품에는 작가인 몰리에르가 무대 위에 직접 등장하고, 스카펑과 함께 극을 끌고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몰리에르의 등장을 통해 작품의 풍자적인 역할이 강화된 느낌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몰리에르 자신이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몰리에르를 무대 전면에 등장시킨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임도환 우리나라에서 몰리에르 작품이 많이 공연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해설이 있는 음악회처럼 작가가 등장해서 관객들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차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다는 목적이 있었고, 기왕에 등장시킬 거면 극에 관여하고 스스로를 풍자함으로써 작품 전체적으로 풍자적인 측면이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지요.

그리고 몰리에르의 작품을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많아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가 코미디가 갖고 있는 단점이면서 또한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등장인물들이 몰리에르에게 그런 면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몰리에르가 그에 대한 변명을 하는 모습에서 코미디적 요소, 극을 보는 재미를 배가시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남궁경 몰리에르가 등장함으로써 사실상 메타극, 즉 극에 대한 극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관객들로서는 거리를 두고 작품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거리두기가 연출님이 생각하시는 ‘웃음’을 표현하는데 적합한가요?

임도환 관객과 작품 사이의 거리두기를 의도하다 보면 작품에 예기치 않은 새로운 리듬이 들어오거든요. 그러한 방식이 엉뚱함으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지요. 적시적소에 개입하는 그 느닷없음이 관객의 생각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요. 일정한 리듬을 깨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오는 생경함은 특히 코미디에서는 유쾌한 웃음을 유발하죠. 그리고 그 생경함의 코드가 반복이 되면 관객에게 웃음의 포인트에 대한 학습의 효과를 주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조리하지 않아요. 즉 부조리죠. 어떤 장면에서는 갑자기 계급이 뒤바뀌기도 하는데 이것은 상황에 대한 부조리가 연출되는 것이고요. 또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부조리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는 잊어버리거나, 부인을 하기도 하고, 또 웃음을 유발하는 그 모든 것은 조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조리는 코믹에 속해요.

“ 부조리는 웃음의 근원이죠. ”

남궁경 의도하신 대로 부조리가 웃음의 도구라면 웃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임도원 부조리는 웃음의 근원이죠. 그 웃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계급으로 나눠져 갑질에 고통 당하는, 평등하지 않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을 환기시키는 것, 즐겁게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대신 욕해 주는 통쾌함 등이죠. 매우 흥미로운 것은 극을 보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무대 위에서 실수하며 자신의 못난 점을 드러내는 인물들이 극을 보는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본인도 무대 위 인물과 수평공간에 같이 있는, 못난 구석이 있는 인간이죠.

남궁경 아르강뜨를 여성으로 각색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임도원 학교에서 작품을 제작할 때마다 매번 어려운 게 여자 배역이 너무 없어요. 고전 작품이 거의 남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여성을 캐스팅하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어떻게든 여성을 참여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성별과 무관하게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롬뜨와 아르강뜨 중 한 명이 여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요즘에는 성별에 대해 유연하기 때문에, 또한 연극이라는 것 자체가 ‘놀이’라는 측면에서도 남성 배역을 여성이 하든 또 그 반대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연극에서는 성별에 대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궁경 〈스카팽〉은 하급계급인줄 알았던 연인이 실은 숨겨진 상류층이었다는 것이 주요 모티브를 이루는, 매우 전형적인 통속극의 원형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이런 종류의 통속성은 다른 매체를 통해 흔히 접하기 때문에 몰리에르의 작품을 연출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번 작품에서 그런 통속성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드러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임도원 몰리에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일단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작품이나 몰리에르 작품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사기치는 것, 즉 함정이죠. 몰래 결혼하고 돈 뺏기 위해 사기치는, 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물들이 갖는 요소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무대 위에서 그런 뻘한 스토리를 연기하는데, 연기자가 그 인물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 작품이 확 바뀌죠. 이번 작품에서는 배우들과 함께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방식을 통해 인물을 만들고 찾아가고 있어요. 특히 할리퀸, 즉 아르랑크(Arlequin)[■]의 경우를 보면 인물의 성격에 세 가지 동물-개, 원숭이, 닭-이 함께 들어가 움직여요. 아르랑크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통극의 말뚝이 같은 하인인데, 희극과 비극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동시대의 코메디아 델라르테가 뭔지를 찾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음도 들어가요. 일부러 전형적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특히 코미디를 하는 배우들은 일종의 다양한 신체적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훈련되어 있는 배우를 보고 관객들이 감탄하는 순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코메디아 델라르테 Commedia Dell'arte
16~18세기 유럽 전역에 번성했던
이탈리아의 극 형식

■ 아르랑크 Arlequin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등장하는
전형화된 유형적 인물

“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만드는
작품의 여운이
길게 갔으면 하고
생각해요.

”

■ ‘댄디함’ Dandy
도회적이고 세련된 멋쟁이

남궁경 듣다 보니 주인공인 스카팽이 어떤 인물로 그려질 지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원작에서도 스카팽은 전형적인 듯 보이는 한편으로는 속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악의 구분도 모호하고요.

임도환 그 동안 공연된 스카팽을 보면 정말 재치 있고, 꾀 부리는 그런 인물로 나와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대부분 코메디아 델라르테에 나오는 할리퀸, 아를르캥의 유형으로 움직이는데 저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저는 전형성을 벗어난, 말하자면 ‘댄디함’(Dandy)을 요구했어요. 극 중 인물이 다른 인물을 만날 때마다 다른 카드를 꺼내야 비로소 그 배역이 3차원으로 보이거든요. 많은 배우들이 함정에 빠지는 것이, 처음부터 자기 인물의 성격을 자꾸만 설명하려고 드는 것이에요. 좋은 배우들은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점차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는 그 동안 보여줬던 전형적이고 유형적인 스카팽에게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궁경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희극과 비극이 섞인 경우에 비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희극은 관객의 웃음을 유도하기가 더 어려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번 작품이 현대의 관객들을 어떻게 설득시키고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도할 수 있을 지가 궁금합니다.

임도환 코미디에 있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그제 어떤 종류의 희극이든 간에 등장인물의 못난 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웃기는 것이거든요. 극 중에 정상적인 인물이 없어요. 물론 비단 코미디 작품의 인물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코미디에서는 그 모자람이 더 강화된 달까요. 예를 들어, 광대가 서커스에 나와서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을 잡기 위해 온갖 시도를 다 해요. 관객이 보기에는 모자란 거지만 의자에 올라가는 행위 하나도 광대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게 거기 올라가서 풍선을 잡으면 박수가 터지거든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순진함, 그 역경을 딛고 풍선을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관객은 감동을 하거든요. 스토리를 통해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물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합을 이루고 어떤 것에 부딪치고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야기는 뻔한 거잖아요.

프랑스식 코미디가 우리나라 관객의 희극 취향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한 것을 그대로 올리는 건 너무나 힘들고,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서와 잘 섞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셰익스피어도 코메디아 델라르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통속성 그 자체를 그대로 갖고 올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형식만 취해서 희극을 썼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만드는 작품의 여운이 길게 갔으면 하고 생각해요. 그게 코미디든 아니든, 어떤 작품이건 간에요. 속되게 표현하자면 일단 관객의 머리를 후려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웃기지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풍자라는 것은 보는 그 순간 즐거운 것이지만 작품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떠올리며 나중에도 웃을 수 있겠죠. 제 작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곤란할 때 언제나 멋지게 도와줄 사나이”

막이 오르면 작가 몰리에르가 무대 위에 등장한다. 몰리에르는 자신과 작품 그리고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다 같이 노래를 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재벌가인 아르강뜨와 제롱뜨는 자식들의 정략결혼을 약속하고 여행을 떠난다. 그 사이 둘의 자식들은 각자 신분도 모르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진다. 부모의 정략결혼 약속을 알게 된 두 자식들은 제롱뜨의 하인 스카팽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렇게 젊은이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약간의 사심을 담은 스카팽의 계략이 시작된다...



"He comes to our rescue whenever we're in trouble!"

When the curtain rises, playwright Molière appears on stage. He introduces himself, his work and the main characters. Then the story takes off, as everyone in the audience is invited to sing together. Two wealthy persons, Argante and G ronte, plan an arranged marriage between their respective children, before setting out on a journey. During their absence, the two children in question each fall in love with someone from an ambiguous background. When they learn of their parents' marriage plans for them, they turn to Scapin, servant to the household of Geronte, for help. Scapin thus devises a clever strategy to save the day for the young lovers, though not entirely without ulterior motives.





?

아르강뜨



이아상뜨



아들

연인

옥따브



유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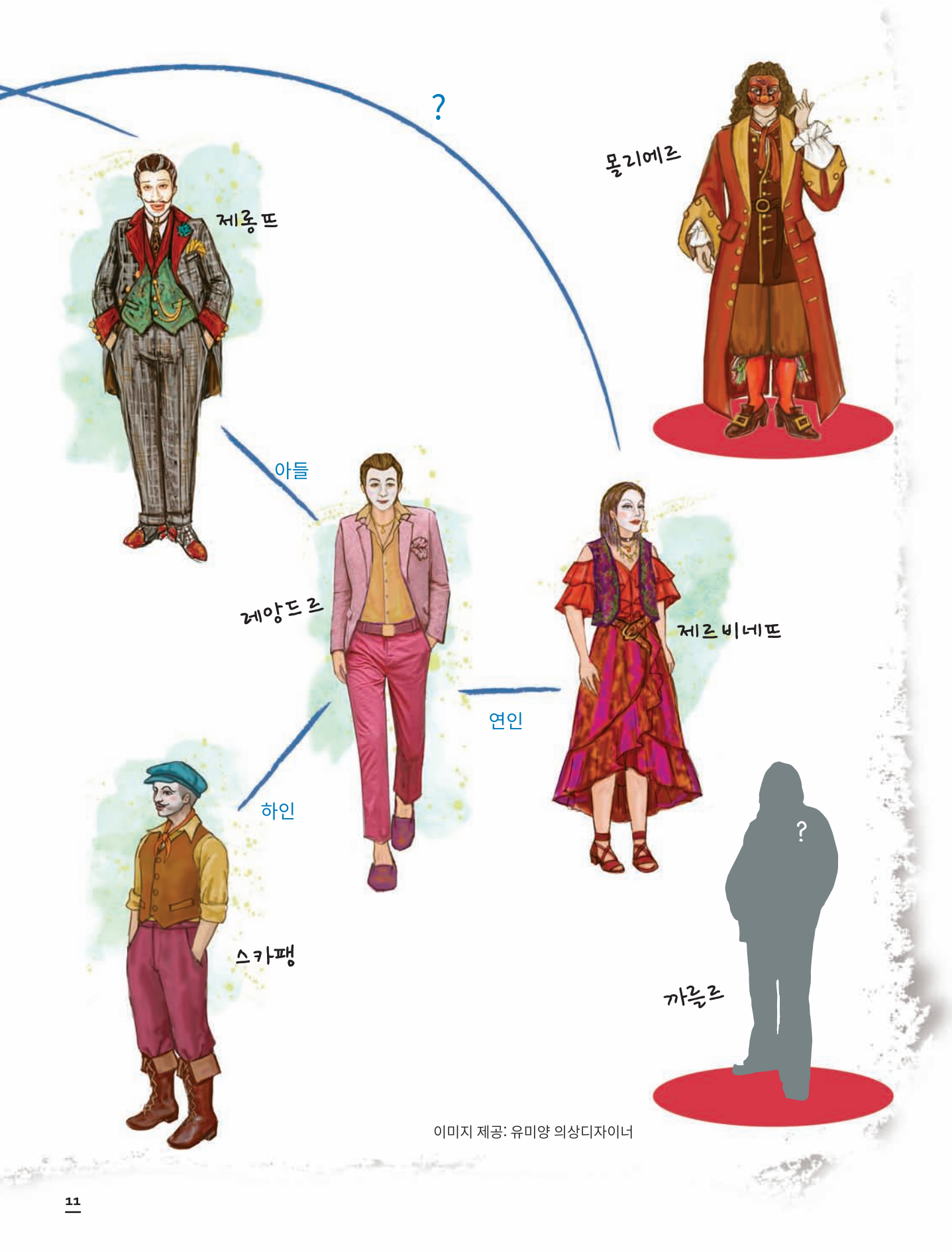
하인

네긴느



실베스트르





이미지 제공: 유미양 의상디자이너



이중현 Lee Jung-hyun

스카펄 Scapin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14, 11 | 김두철 | 예그린씨어터 외
 〈보이책〉 19, 13 | 중대장 | 명동예술극장 외
 〈한여름 밤의 꿈〉 18 | 보텀 | 설치극장 정미소
 〈관속에 갇혀 매장 당하는 6인의 이야기〉 17 | 장석태 |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휴먼코메디〉 12 | 출신생 | 여수엑스포 천막극장
 〈죄와 벌〉 12 | 라즈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경멸에 대한 경멸〉 11 | 출연진 | 서대문 문화회관대극장
 〈그놈이 그놈〉 10 | 나레이터 | 알과핵 소극장
 〈왕벚나무 동산〉 10 | 김문옥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뮤지컬

〈시간의 사용〉



성원 Sung Won

몰리에르 Molière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극〉 19, 16, 14 | 김한철 | 예그린씨어터 외
 〈보이책〉 19, 13 | 악대장 | 명동예술극장 외
 〈한여름 밤의 꿈〉 18 | 보텀 | 설치극장 정미소
 〈노란 달〉 18 | 프랭크 | 상명아트홀
 〈관속에 갇혀 매장 당하는 6인의 이야기〉 17 | 민영화 |
 동숭아트센터 꼭두소극장

〈카프카의 소송〉 17, 16, 15 | 변호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휴먼코메디〉 15, 13 | 사진사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크리스토퍼 놀란 클럽〉 14 | 조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죄와 벌〉 12 | 라스콜리니코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왕벚나무 동산〉 10 | 거지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뮤지컬

〈시간의 사용〉 〈버스〉



김한 Kim Han

제롱뜨 Gêronte

연극

〈자기 앞의 생〉 19 | 유세프 카디르 | 명동예술극장
 〈록앤롤〉 18 | 페르디난드 | 명동예술극장
 〈페스트〉 18 | 조제프 그랑 | 명동예술극장
 〈3월의 눈〉 18 | 일본인관광객 | 명동예술극장
 〈사천의 착한 살인〉 17 | 센테 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빛의 제국〉 17, 16 | 위성곤 | 명동예술극장 외
 〈겨울선인장〉 15 | 가즈야 | 윤당아트홀 1관
 〈키사라기 미키짱〉 15, 12 | 이에모토 | 대학로 예술마당 외
 〈가을반딧불이〉 14 | 분페이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악역배우 남달구〉 11 | 남달구 |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 외

뮤지컬

〈윤현궁 로맨스〉 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외



양서빈 Yang Savine

아르강뜨 Argante

연극

〈콘센트-동의〉 19 | 게일 | 명동예술극장
 〈록앤롤〉 18 | 렌카 | 명동예술극장
 〈운명〉 18 | 박메리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8 | 한국관광객 | 명동예술극장
 〈빛의 제국〉 17, 16 | 소지 | 명동예술극장 외
 〈탈출, 날숨의 시간〉 17, 16 | 미선 | 국립극장 하늘극장 외
 〈홍도〉 15, 14 | 홍도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칼로막베스〉 14, 11, 10 | 맹인술사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부활〉 13 | 미시 코르차기나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한꺼번에 두 주인을〉 12 | 클라리스 | 명동예술극장 외

수상

2015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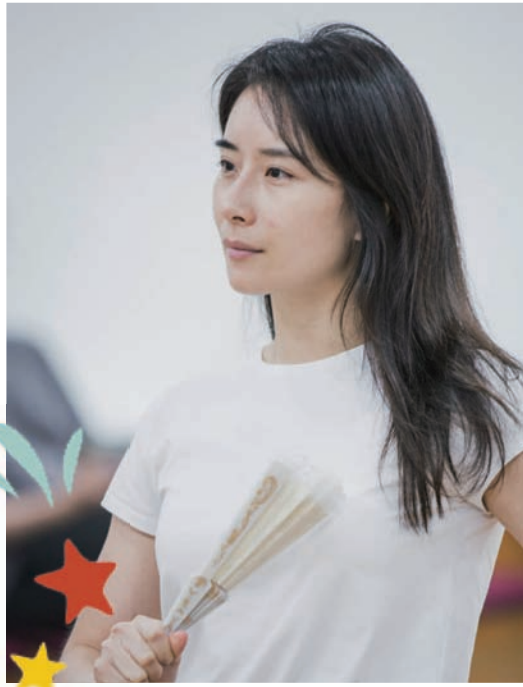


임준식 Im Jun-sik

레앙드르 Léandre

연극

〈콘서트-동요〉 19 | 제이크 | 명동예술극장
 〈고독한 목욕〉 19 | 친구3 | 백성희장민호극장
 〈햄릿_아바따〉 18, 17, 16 | 햄릿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오슬로〉 18 | 하산 아스푸르 | 명동예술극장
 〈페스트〉 18 | 젊은 베르나르 리유 | 명동예술극장
 〈사거리〉 17 | 영하 |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모범생들〉 17, 13 | 안종태 | 대학로 드림시어터 4관 외
 〈세상친구〉 17 | 만석 | 대학로 드림시어터 소극장 외
 〈일리아드〉 16, 12 | 아가멤논 | CJ아지트 대학로 외
 〈히스토리 보이즈〉 14, 13 | 렛지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외



박가령 Park Ga-ryeong

제르비네트 Zerbinette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19 | 비르기니아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혜숙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송애라 | 백성희장민호극장
 〈성〉 18 | 페피 | 명동예술극장
 〈자메이카 헬스클럽〉 17 | 지성미 | 익스트림씨어터 3관
 〈극적인 하룻밤〉 14 | 시후 | 대학로 바탕골 소극장
 〈내가 하늘을 날 때〉 08 | 정현진 | 상명아트홀
 〈사운드 오브 뮤직〉 00 | 브리지타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외

드라마

〈천일의 약속〉 〈부모님 전상서〉 〈천국의 계단〉 〈귀여운 여인〉 외



이호철 Lee Ho-cheol

옥따브 Octave

연극

〈뼈의 기행〉 19 | 황가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오슬로〉 18 | 론 푼닥 외 | 명동예술극장
 〈얼굴도둑〉 18 | 남자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3월의 눈〉 18 | 중국인관광객 외 | 명동예술극장
 〈카프카의 소송〉 17, 15 | 요제프K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관속예 갇힌 6인의 이야기〉 17 | 김영수 | 동송아트센터 꼭두소극장
 〈거인이 걸어오고〉 17 | 거인 |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크리스토퍼 논란 클럽〉 17, 14 | 하비 덴트 | CKL스테이지 외
 〈굴레방다리의 소극〉 16 | 김대식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스튜디오
 〈휴먼코메디〉 15, 13 | 아들 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외

창극

〈미녀와 야수〉



강해진 Kang Hae-jin

이아상뜨 Hyacinthe

연극

〈뼈의 기행〉 19 | 영육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록앤롤〉 18 | 질리안 외 | 명동예술극장
 〈오슬로〉 18 | 트롤 외 | 명동예술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레이디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말리아 외 | 명동예술극장
 〈선을 넘는 자들〉 18 | 옥진선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레일을 따라 붉은 칸나의 바다로〉 17 | 연화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유리디스〉 17 | 유리디스 | 여행자 극장
 〈재생불량소년〉 16 | 경우 | CJ아지트 대학로
 〈백목원 : 유전유죄, 무전무죄〉 15 | 그루헤 | 동송아트센터 동송소극장 외



박경주 Park Kyung-zoo

실베스트르 Silvestre

연극

〈갈릴레이의 생애〉 19 | 루도비코 외 | 명동예술극장
 〈호신술〉 18 | 박정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장한구 | 백성희장민호극장
 〈두드려라 맥베스〉 18 | 맥베스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성〉 18 | 아르투르 외 | 명동예술극장
 〈한밤의 사람들〉 18 | 완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BJ 파우스트〉 17 | 파우스트&메피스토 |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4관
 〈페스카마-고기잡이 배〉 17 | 갑판장 | 동양예술극장 3관
 〈플라토노프〉 14 | 세르게이 | 백성희장민호극장
 〈도화만발〉 11 | 선비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수상

2017 제7회 서울미래연극제 연기상



이수미 Lee Soo-mi

네린느 Nérine

연극

〈뼈의 기행〉 19 | 심가 | 백성희장민호극장
 〈자기 앞의 생〉 19 | 로자 | 명동예술극장
 〈텍사스 고모〉 18 | 소철할머니 | 백성희장민호극장
 〈운명〉 18 | 인근 여인 갑 | 백성희장민호극장
 〈처의 감각〉 18 | 여인숙 펜션주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모노드라마-햄릿잇행〉 17 | 햄릿 | 아라리오뮤지엄 공간소극장
 〈손님들〉 17 | 3단지 길고양이 | 예술공간 오르다
 〈반신〉 14 | 가브리엘 | 명동예술극장
 〈맥베드〉 12 | 레이디 맥베드 | 이탈리아 팔레르모극장
 〈템페스트〉 11 | 에어리얼 | 영국 에든버러 왕립극장 외
 외

수상

2019 제55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2015 제36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김요찬 Kim Yo-chan

음악감독/연주자 Musician

연극

〈굴레방다리의 소곡〉 19, 14 | 음향디자인 | 예그린씨어터 외
 〈크리스토퍼 놀란 클럽〉 17, 14 | 음악감독 및 연주자 | CKL스테이지 외
 〈노래하듯이 햄릿〉 15 | 음향디자인 | 백성희장민호극장
 〈카프카의 소송〉 15 | 음향디자인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바후차라마타〉 14 | 음향디자인 | 남산드라마센터
 〈보이첵〉 13, 08 | 음향디자인 | 명동예술극장 외
 〈휴먼코메디〉 13 | 음악감독 및 연주자 | 명동예술극장 외
 〈죄와 벌〉 12 | 음악감독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하녀들〉 11 | 음향디자인 |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왕벚나무 동산〉 10 | 음향디자인 |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외

뮤지컬

〈헤드윅〉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 〈주유소 습격사건〉 외



몰리에르,

웃고 나서 알게 하다

임선옥_연극평론가

몰리에르(1622~1673)는 프랑스 고전 극작가로 코미디의 대가다. 코미디의 역사는 몰리에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평가는 코미디 작가로서의 몰리에르의 위상을 알게 한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비극보다 열등하게 취급받았던 희극이 몰리에르에 이르러서 비로소 희극도 비극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몰리에르는 비극에서 사용하던 운문으로 코미디 대사를 쓰고,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만큼 당대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관객을 웃게 했다.

17세기 프랑스 관객을 웃게 했던 몰리에르 코미디는 우리나라 관객도 웃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몰리에르 작품은 <타르튀프> <동 쥐앙> <수전노> <서민귀족> <상상병 환자> <스카펫의 간계> 등 여러 작품이 있고, 각색작품으로도 무대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몰리에르 작품을 보며 웃는 우리나라 관객을 보면, 몰리에르의 코미디가 보여주는 세상과 인물들이 시대와 문화와 지역을 뛰어넘는 웃음의 요소를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 웃음은 몰리에르가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과 인간 세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있는 그대로 무대 위에 비춘 모습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일 것이다.

관객을 즐겁게 하다.

몰리에르가 연극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다. 몰리에르는 코미디로

관객을 즐겁게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악덕과 결함을 적나라하게 무대 위에 펼쳐 보였다. 17세기 프랑스 관객을 웃게 했을 뿐 아니라,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몰리에르 코미디는 세계무대에 오르고 오늘의 관객도 웃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연극에서 웃게 하는 것이 울게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몰리에르 자신도 멀쩡한 사람을 웃기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웃음의 코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시대, 문화와 지역을 초월해 웃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몰리에르의 코미디는 300년을 훨씬 넘게 세계관객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몰리에르가 연극을 만들던 시대인 17세기 프랑스는 고전주의 규칙을 만들어 모든 연극에 평가 기준의 잣대를 들이밀던 시대였다. 몰리에르의 많은 작품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자와 평단의 비난을 받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는 비난과 비판에 굴하지 않고 자기 작품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관객을 즐겁게 하는 것’에 두었다. 규칙에 맞지도 관객을 즐겁게 하지 않는다면, 정해진 규칙에 맞지 않아도 관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규칙이라고 했다. 몰리에르는 연극인으로서 관객의 기쁨을 최우선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몰리에르는 극작가, 연출가, 배우, 극단주, 제작자로서 파리에서 극단을 만들고 유랑극단 생활을 거쳐 파리로 돌아와 사회 전 계층을 웃게 한 프랑스 유명 연극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작품인 <상상병 환자> 무대에서 연기하다 쓰러져 생

을 마감한다. 우울한 성향의 코미디 작가였던 몰리에르의 개인사는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우울한 인생에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몰리에르는 전 생애에 걸쳐 코미디를 만들어 관객을 웃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있는 그대로 묘사하다.
본성을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몰리에르는 뛰어난 관찰자였다. 눈에 보이는 시대와 현실과 풍속과 사람을 세밀하고 깊이 있게 관찰해 그 양상을 작품에 담았다. 마치 몰리에르가 살았던 시대를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작품에 반영한 결과로 그의 작품에는 당대 프랑스의

풍속과 사람과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에도 몰리에르 코미디가 세계무대에서 공연된다는 것은 몰리에르 작품에 담긴 모습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의 풍속과 사람의 모습과도 통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 세상사와 인간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몰리에르를 유명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많이 공연되는 작품 위주로 그 모습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프랑스 연극사에 기록된 3대 연극 논쟁작으로 코르네이유의 <르시드>, 몰리에르의 <아내학교>와 <타르튀프> 논쟁이 있다. 17세기 프랑스 연극은 프랑스 학술원 학자들 중심으로 연극이 지켜야 할 원칙들을 정하고, 그 원칙을 기준으로 연극은 평가받았다. 주요 원칙인 삼일치 법칙을 적용하며 연극이 개연성과 사실다움과 상식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그 원칙에 어긋난 작품들로 <르시드> 논쟁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아내학교>는 풍기문란을 이유로 학자들은 좋지 않은 연극이라는 평가를 했다. 물론 평가와는 달리 논쟁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은 모두 관객에게는 환영받았다. 그중에서도 신성모독 논란을 일으켰던 <타르튀프> 논쟁은 단순히 연극논쟁이 아닌 사회, 정치, 종교계까지 연루되어 당대 프랑스 사회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비극보다 열등하고, 그저 사람들을 웃기거나 하는 것이 희극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코미디 한 편이 사회 전체를 들썩이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타르튀프>라는 작품이 그 시대에 커다란 폭발력을 보여줄 만한 민감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타르튀프>의 내용은 가짜 신앙인이 한 부르주아 가정에 식객으로 들어가 가장을 속이고 탐욕을 드러내며 마침내 그 집을 차지하고 가족을 모두 내쫓으려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다. 이 코미디는 신앙을 소재로 가져와 가짜 신앙인의 위선과 탐욕, 맹목적 신도의 어리석음과 무분별이 한 가정을 위기에 빠트리는데, 문제가 된 것은 신앙이 주요 매개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당시 카톨릭이 국교였고, 왕실과 귀족뿐 아니라, 프랑스인 전체가 표면적으로는 종교를 신성시하던 시대였기에 더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신앙으로 사기를 치는 타르튀프다. 타르튀프는 몰리에르 코미디의 등장인물이지만 그 유명세로 말미암아, 불어사전에 위선자의 의미로도 풀이된다. 타르튀프는 독실한 신앙인 행세와 말로 위장하는데, 그 위장에 속는 사람은 식객으로 들어간 집안의 가장 오르공이다. 타르튀프의 위선과 사기가 오르공의 눈에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기치는 사람과 사기당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관계가 성립되고, 코미디는 사기의 과정과 종결까지의 내용을 코믹하게 다룬다. 아내와 자식과 하녀가 타르튀프의 위선을 알려줘도 믿지 않던 오르공은 타르튀프가 자신의 아내를 유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서야 속았음을 인정한다. 오르공은 타르튀프를 내쫓으려고 하지만, 이미 타르튀프에게 집문서까지 양도했기에 오르공과 가족은 오히려 집에서 내쫓길 상황에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타르튀프는 오르공을 투옥시키려고 경찰을 데려오지만, 오히려 타르튀프의 과거 사

“

몰리에르는

뛰어난 관찰자였다.

눈에 보이는 시대와

현실과 풍속과 사람을

세밀하고 깊이 있게 관찰해

그 양상을 작품에 담았다.

”

기죄들이 발각되어 체포되고, 오르공과 가족은 다행히 자신의 집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

몰리에르의 대표작이자 시대의 문제작이었던 <타르튀프>에서, 타르튀프의 징벌이 오르공의 가족에게 비극이 아닌 해피엔드를 가져다주지만, 그렇다고 오르공의 어리석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은 타르튀프의 위선과 함께, 그 위선과 사기가 통할 수 있게 한 오르공의 맹목적 어리석음도 질타하고 있다. 동시에 당시의 표면적인 신앙 행위와 사기행위를 일삼는 일부 종교인들의 위선과 맹신을 강하게 풍자하고 있다. 풍자의 칼날은 가짜 신앙인(타르튀프)만이 아니라 무분별한 신자(오르공)도 같이 겨누고 있다. 오르공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타르튀프가 체포되고 끝나는 코미디를 보고 웃으면서 극장을 나온 관객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자신도 위선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속았던 적은 없었는지를.

“

몰리에르는 관객이 코미디를 보고 웃으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코미디의 역할이 인간의 악덕을 교화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웃으면서 배우게 하다.

몰리에르는 관객이 코미디를 보고 웃으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코미디의 역할이 인간의 악덕을 교화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교화가 정색하고 심각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웃으면서 코미디 속 악덕을 보고 깨우치게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몰리에르의 작품들에는 당대의 사람, 풍속, 사회, 관습, 유형 등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관통하는 주제는 외관과 실체의 어긋남, 속고 속임에서 비롯되는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 중심주제는 인간의 위선과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압축할 수 있다. 꾸민 모습과 실제 모습, 거짓과 진실, 이중성이 그의 작품 전체에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몰리에르는 코미디에서 다루기 어려운 진지한 주제를 희극적으로 그려내며 악덕을 교정할 수 있기 바란다. 관객이 웃으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기에, 그의 작품은 가볍지만 무겁고, 무겁지만 가볍다. 몰리에르 코미디가 때때로 우울하고 어둡게 공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공연금지 되었던 <타르튀프>에 이어 무대에 오른 <동 쥐앙>은 위선자 타르튀프보다 더한 부도덕한 무신론자를 등장시킨다. 전설적인 바람둥이 이야기를 담은 <동 쥐앙>에서는 무신론자이자 패륜적인 모습을 한 젊은 귀족을 통해 당대의 악덕과 위선을 집결시킨다. 주인공의 입을 통해 “위선이라는 악덕이 유행”이라고 당대를 풍자한다. 동 쥐앙은 마지막에 자신의 죄로 지옥 불에 휩싸이지만, 구원도 용서도 회개도 거부한다. 주인공이 죽는 결말은 코미디에 어울려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고 주인공의 죽음이 비극적이지는 않다. 주인이 죽었는데 하인은 못 받은 돈타령을 하면서 작품이 끝날 때, 관객은 웃게 된다. 죄 많은 주인공은 죽고, 그를 흉내 내던 하인이 돈을 못 받은 결말이 관객입장에서는 해피엔드다. 주인공의 불행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 불행에 다른 이들은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 속 주인공은 당시 일부 귀족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당대에 용인할 수 없을 만큼 신성모독적 인물로 등장했기 때문에, <동 쥐앙>은 공연 금지된 이후, 작가 생전에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한다. 이어서 발표한 <인간혐오자>에서도 코미디와 어울리지 않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스스로 진지하고 정직하다고 믿는 그는 자신의 경직성과 편협함으로 인해 고립되어 홀로 떠나는 결말을 맞이한다. 이 역시 주인공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인물과 관객에게는 해피엔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귀족계급과 사교계의 위선을 투영한 이 작품에서 인간혐오자가 되어 고립을 택한 주인공의 쓸쓸한 결말 역시 코미디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이 작품이야말로 진지한 코미디의 씩씩한 웃음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영혼을 웃기는 위대한 코미디라는 평가가 동시에 내려진다.

“

그의 마지막 작품은
연극을 웃으면서 축제처럼
즐기고 극장을 나가서도
생각하기를 바랐던
작가의 소망을
함축하고 있다.

”



몰리에르는 자신과 작품에 쏟아지는 비판과 상관없이 새로운 코미디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멈추지 않는다. 그 열망은 무용과 음악과 연극을 결합한 형식인 발레-코미디 작품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연되었던 〈서민귀족〉과 〈상상병 환자〉가 몰리에르의 말기 작품인 발레-코미디다. 〈서민귀족〉에서는 인간의 허영과 위선을 풍자하고, 〈상상병 환자〉에서는 상상으로 아픈 인간을 희극적이며 불거리 풍부하게 그려낸다. 죽음과 불안에 사로잡힌 주인공의 증상을 카니발 형태의 축제처럼 끝나게 했던 그의 마지막 작품은 연극을 웃으면서 축제처럼 즐기고 극장을 나가서도 생각하기를 바랐던 작가의 소망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끝으로 작가는 세상을 떠났다. 몰리에르 코미디의 결말은 극 중 사건을 해피엔드로 마무리하지만, 그 끝을 깊게 생각해보면 웃기만 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위선도, 거짓도, 어리석음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각자 찾아야 한다. 몰리에르의 코미디는 웃고 나서 생각하게 한다. 관객이 배울 수 있도록.

코메디아 델라르테와 스카피노

나폴리, 가면을 쓴 노인들, 두 쌍의 연인, 젊은 연인들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들, 주인을 속이고 골탕 먹이며 연인들을 도와주는 꾀 많고 술책에 능한 하인. 몰리에르의 〈스카팽의 간계(원제)〉는 16세기 대중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풍 계략희극이다. 중심인물 스카팽도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교활하고 자유분방한 하인 스카피노(Scapino 또는 Scappino)라는 인물에서 유래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16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어 3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사랑을 받은 서양 대중문화의 대표적 예가 되는 연극 양식이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명칭은[■] ‘전문배우들이 하는 연극’을 의미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각 극단들은 10~20여 명의 배우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은 함께 살고, 함께 작업하고, 함께 순회공연을 다녔다. 각 배우들은 고유한 가면, 옷과 성격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고정된 배역을 맡았으며, 간략한 개요를 중심으로 하는 대본을 바탕으로 즉흥극을 했다. ‘유형’으로 구분되는 인물들과 어릿광대짓을 동반한 벌레스크한(Burlesque)[■] 상황을 기본으로 텍스트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볼거리의 의미에서 조화를 보여주는 연극을 만들고자 한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계층의 구별 없이 광범위한 일반대중을 관객으로 가지게 되었으며, 3세기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폭넓게 발전했다. 이 연극은 1570~1571년 카테리나 디 메디치, 이어서 앙리 3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들어오며 프랑스 연극으로 스며들었고, 특히 그 유형적 인물들은 프랑스 무대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생명을 이어가고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큰 미학적 원칙 중의 하나는 ‘유형’으로 불리는 인물들의 존재이다, 대표적인 인물 유형으로는 두 노인 판탈로네(Pantalone)와 박사(Il Dottore), 우아한 한 쌍이나 두 쌍의 젊은 연인(Innamorati), 허풍쟁이 대장(Capitan), 희극적 하인과 하녀 등이 있다. 베니스 출신의 부유한 상인 판탈로네, 요란하고 말이 많은 볼로냐 출신 박사, 베르가모 인근 마을에서 농부들의 상스러운 언어를 구사하는 베르가모 출신의 하인들, 토스카나 언어를 사용하는 우아하고, 젊고, 순수한 연인들, 길과 카바레를 돌아다니며 미인들을 유혹하고 자신의 공적을 노래하는 대장. 이 각 인물들에는 독특한 개인적 성격, 전통에서 비롯된 지역적 특성,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뚜렷한 사회적 유형이 복합되어 있다. 고정된 성격으로 정형화된 그들은 변함없는 줄거리를 통해 하나의 유형을 형상화하고, 각자의 고유한 옷과 가면, 독특한 연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시각적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정형화되었다. 그들을 통해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나이불문의 인간의 약점이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한 극단이 수십 년 동안 이 고정된 속성을 지닌 동일한 유형의 인물을 내세울 뿐 아니라 다양한 극단들이 전부 동일한 유형의 인물들을 내세운다. 그러다보니 각 배우들은 수십 년 동안 동일한 배역을 맡아서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고유한 유형으로 정형화된 인물들은 세대로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으며,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삶의 여러 면을

■ ‘아르테 Arte’는 ‘기술’, 예술의 ‘기법’, ‘직업’을 의미한다.

■ 벌레스크 Burlesque
버라이어티 쇼 등을 상연할 때
막간에 끼워 넣는 풍자극

김찬자_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교수



코메디아 델라르테_이탈리아 가면들. G. Gallina의 채색 그라비아, 19세기.

수용할 수 있는 민중적 범주를 형성한다.

이 정형화된 유형들 가운데 특히 오래도록 남아 사랑받고 프랑스풍으로 변형을 거듭한 것은 하인 유형의 인물들이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하인들은 두 유형의 인물들로 구분된다. 첫째는 껌 많고 교활한 유형으로 브리젤라, 스카피노, 벨트람, 플라우티노, 메제티노 같은 인물들이 있으며, 둘째는 우둔한 바보 유형으로 아를레키노, 페드로리노, 투르팔디노, 프리텔리노 같은 인물들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게으르고’, ‘바탕이 무지하며’, ‘한없이 외설적’이던 아를레키노는 프랑스에서 ‘아를르캥’이라는 이름을 얻고 좀 더 우아하고, 세련되고, 민첩한 인물로 변화되며 대중적 명성을 누린다. 스스로 자신의 가족은 ‘아버지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보들’이라고 밝히는 또 다른 어리석고, 무지하며, 요령부득인 하인 페드로리노는 프랑스에서 ‘피에로’라는 이름으로 천진난만하고, 정직하고, 감성적인 인물로 변화된다. 그는 19세기 가장 위대한 피에로라는 찬사를 받은 가스파르 드뷔로(Gaspard Debureau)와 그의 아들 샤를 드뷔로(Charles Debureau)의 팬터마임과 함께 되살아난다. 피에로는 드뷔로의 재창조와 더불어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인 페드로리노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로 영화 <천국의 아이들>(1945)에서 장 루이 바로의 마임을 통해 사랑에 빠져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감성적인 피에로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첫 번째 유형의 하인에 속하는 스카피노는 하인 계보에서 브리젤라 유형에 속하는 인물이다. 브리젤라는 ‘논쟁’, ‘계략’을 뜻하는 이탈리아 단어 ‘브리가(Briga)’에서 유래한다. 베르가모 아랫마을 출신 아를레키노보다 비교적 머리가 깨어있고 좀 더 똑똑하다고 평판이 나있는 베르가모 윗마을 출신인 브리젤라는 음모와 계략, 속임수에 뛰어난 인물이다. 아를레키노와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껌 많고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인물이지만,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천진난만하고 인정이 가는 아를레키노와는 달리 좀 더 치밀하고 계략에 능한 인물이다. 아를레키노를 이용할 때도 있지만 자기 머리를 믿고 혼자 일을 수행하기를 좋아한다. 사랑의 계략이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인물로 냉소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다. 매부리코에 올리브색이 도는 가면을 쓰고 고양이 수염을 한 그가 슬그머니 다가올 때 연인들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고 경계를 한다. 결혼을 망쳐놓거나 일을 뒤집어놓거나 연인들을 밀고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브리젤라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피노는 브리젤라보다는 덜 음흉하고, 덜 냉소적인 인물이

다. 브리켈라가 칼을 휘두를 곳에 순발력 있는 다리를 사용하기를 선택하는 인물이다. 그는 찌르레기와 흡사하다. 재잘거리고, 여기저기서 좀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갔다가 늘 되돌아온다. 스카피노는 이탈리아어 ‘Scappare’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이는 ‘도망가다’라는 뜻이다. 나쁜 짓을 하고는 위험을 피해 도망가는 단순한 해결법을 선택하는 인물의 특성이 반영된 이름이다. 그는 생각을 깊이,

조리있게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구걸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봄날 새들처럼 사랑에 빠지는데 그에게는 그 봄날이 일 년 내내 지속된다. 그는 아무것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며, 새처럼 즐거움을 위해 사랑에 빠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옮겨 다니며 뒷생각 없이 자신의 가벼운 뇌의 충동을 따른다. 노력하지 않는 거짓말쟁이지만 그 거짓말도 그의 성격처럼 아무 중요성이 없다.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희극적 유형의 하인들은 프랑스로 와서 모두 더욱 개화되고, 세련되고 계략이 뛰어난 하인들로 변화된다. 도미니크라는 이름으로 파리에서 아를크앵 역할을 하던 이탈리아 배우 비앙코렐리(D. Biancolelli)는 프랑스 사람들이 좀 더 세련되고, 지적이고, 우아한 태도와 신랄한 언어를 선호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인물을 변화시켜서 무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음흉한 브리켈라와 술책을 부리지만 어리석은 구석이 있는 스카피노는 몰리에르를 통해 덜 음흉하고 더 민첩한 하인 스카팽으로 거듭난다.

몰리에르는 파리에 정착해서 고정적으로 공연을 올리는 이탈리아 배우들과 1662년부터 1673년까지 처음에는 루브르의 맞은 편 프



스카피노_스카피아.
J. Callot의 Balli di sfessania, 1622경.

티 부르봉(Petit Bourbon) 극장, 다음에는 팔레 루아얄(Palais Royal) 극장을 나눠서 썼다. 그들과의 만남은 몰리에르에게 가면 유희의 기술, 라씨 사용, 즉흥극을 기본으로 하는 몇몇 상황의 모방 등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무대 미학을 자기 작품들에 투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의 전통적 희극 유형들의 보고를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 ‘오라스’, ‘펠리’, ‘레앙드르’, ‘옥타브’, ‘이사벨’, ‘코비엘’, ‘트뤼팔댕’, ‘스카팽’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연인들과 하인들, 스가나렐, 아르놀프, 아르파공, 알세스트 아래로 드러나는 베니스인 판탈로네의 투박한 모습 등 그의 인물들에서 이탈리아적 기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몰리에르가 스카팽 인물을 형성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작품은 배우이며 작가인 벨트람(Beltrame, N. Barbieri)이 1629년 토리노에서, 1630년 베니스에서 출판한 〈경솔한 사람 혹은 난처한 스카팽과 고통 받는 메제탱(Inavertito o vero Scapino disturbato e Mezzetino travagliato)〉(1629)인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를 무대로 노예인 ‘셀리아’를 사랑하는 ‘폴비오’와 ‘생티오’, 그중 폴비오는 간계의 왕인 자기 하인 스카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 작품은 교활한 모사곤 하인 유형들 가운데 스카팽에게 최고의 주도권을 부여한 작품이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에 와서 더욱 영리하고, 더욱 똑똑하고, 더욱 치밀한 하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몰리에르는 스카팽을 작품을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젊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인물로 정신의 민첩성만큼이나 몸도 민첩하다. 자신의 재능으로 행동의 주도권을 쥐는 하인으로 지휘하고, 명령하고, 승리한다. 그는 경험이

풍부한 수완가이고, 젊은 연인들을 위해 움직이고 행동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 기상천외한 간계를 쓰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해 행동하기도 한다. 그는 개인적이며 다소 부정적인 인물로 기발한 상상력으로 유희를 이끄는 연출가이다. 작품의 희극성은 스카팽이 하인의 역할에서 벗어나 주인들에게 힘을 행사하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서슴지 않고 복수하려고 한다. 이 작품은 출생, 부, 사회의 계급보다 지성에 우위를 부여한다. 〈스카팽의 간계〉가 고전 레퍼토리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작품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이다.

하인은 희극 문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고대부터 꽤 많고 술책에 능한 하인들은 희극의 소재가 되어왔다. 고대 테렌티우스, 코메디아 델라르테뿐만 아니라 코르네유, 스카롱, 몰리에르, 르사주, 마리보, 보마르셰 같은 프랑스 작가들이 포르미오, 아를레키노, 페드로리노, 브리젤라, 스카피노, 크리스팽, 프롱탱, 파스캥, 마스카리유, 그로-르네, 피가로, 스카팽 등과 같은 많은 다양한 하인들의 이름을 공공의 기억에 남겼다. 스카팽은 이 하인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 명성을 누리게 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스카피노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하인 일을 하다가 프랑스에 와서 사기를 치는 나쁜 충고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몰리에르는 술책을 부리지만 경솔하고 우둔한 데가 있던 그를 프랑스로 귀화시켜 덜 상투적으로 만들고 더욱 응축시켜 젊은 연인들의 일을 성공으로 이끌고 지배계층을 골탕 먹이는 최고의 계략가, 자유로운 감성이 펄떡이는 자신만의 창조물로 만든다. 〈스카팽의 간계〉라는 계략희극 걸작에 단 한 번 투여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확립된 역할은 이제는 프랑스의 자산이며 소유가 되었다.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몰리에르와 함께 문학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이탈리아 전통을 통해 고착된 유형적 인물을 관찰하며 두 문화의 중심에 서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지닌 인물 유형을 만들어내었다. 그는 가끔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지나치게 확장하기도 했지만, 프랑스 작가들 중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근본으로 이해한 첫 작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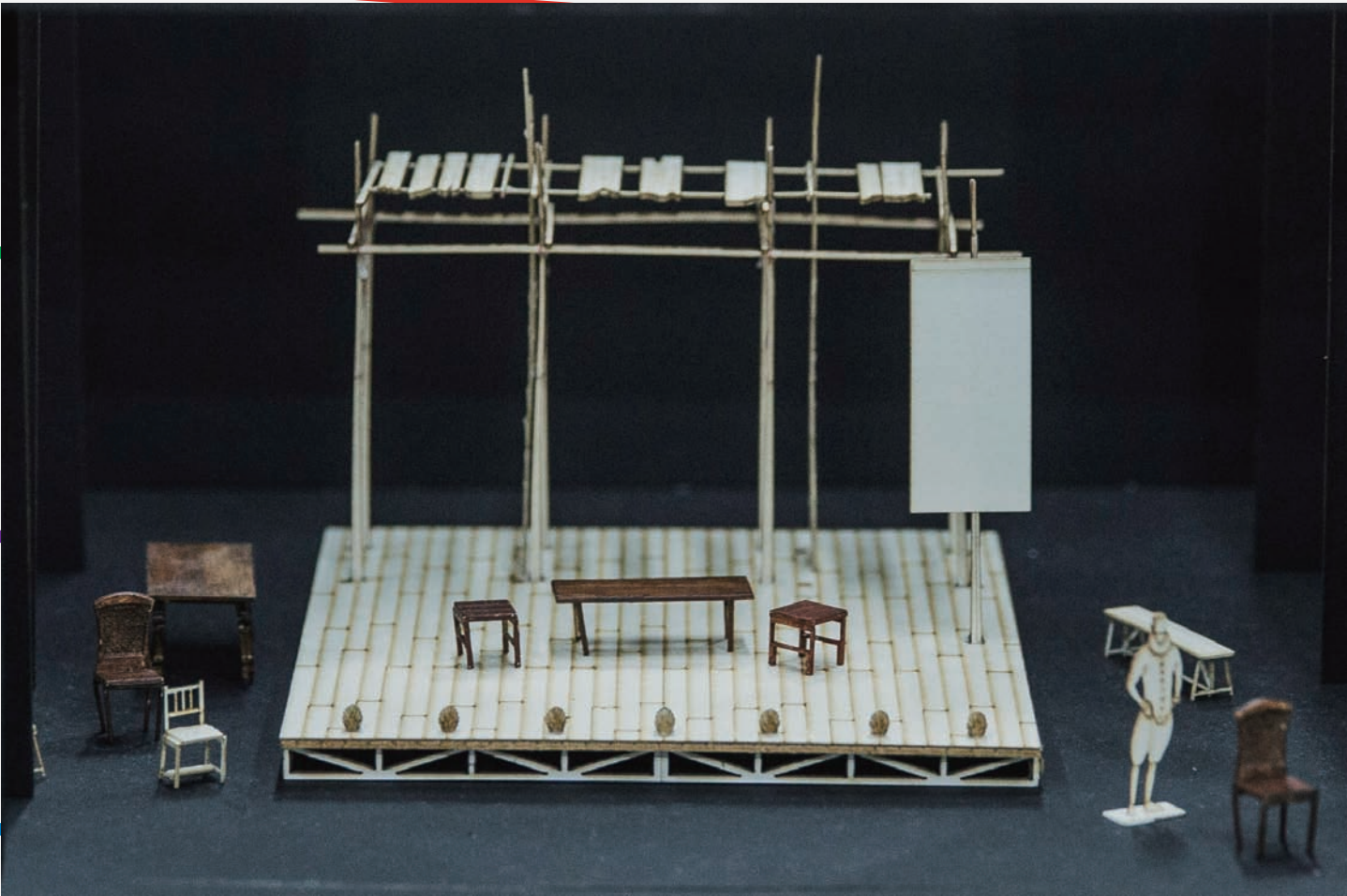


몰리에르 원작의 〈스카팽(원제: 스카팽의 간계)〉 무대디자인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17세기의 고전미와 21세기 우리나라의 모던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였습니다.

17세기의 느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다소 진부하게 보일 수 있고, 반대로 21세기의 모던함을 강조하면 극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이 흐려지면서 동떨어진 개념에만 치우친 무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형태는 17세기 수레무대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되, 색감에 있어서는 모던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의 톤으로 미니멀하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색감의 절제는 각각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컬러풀한 의상디자인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쉽게 전환가능한 대도구를 포함하여 역동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무대를 구현함으로써 밝고 유쾌한 극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습니다.



정승호 Jeong Seung-ho

연극

〈오이디푸스〉 〈리차드3세〉 〈로미오와 줄리엣〉 〈데블
인사이드〉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한강은 흐른다〉 〈프로즌〉 〈바나와 소녀와 마샤와
스파이크〉 〈프랑켄슈타인〉 〈햄릿〉 〈14인의 체홉〉
〈터미널〉 〈한꺼번에 두 주인을〉 외

뮤지컬

〈엑스칼리버〉 〈닥터 지바고〉 〈페스트〉 〈모차르트〉
〈레베카〉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베르테르〉
〈모차르트〉 〈황태자 루돌프〉 〈남한산성〉 〈스위니토드〉
〈렌트〉 외

오페라

〈코지 판 투테〉 〈도요새의 강〉 〈마술피리〉 외

무용

〈호이랑〉 〈더 룸〉 〈봄의 제전〉 〈시 읽는 시간〉 외

수상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수상 〈레베카〉
2011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수상 〈남한산성〉
2008 한국뮤지컬대상 '무대미술상' 수상
〈내 마음의 풍금〉
2008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수상 〈스위니토드〉
2007 서울공연예술제 '무대미술상' 수상 〈벚꽃동산〉





원작—몰리에르 Molière

프로필 _ 2페이지

각색·연출—임도완 Im Do-wan

프로필 _ 4페이지

무대—정승호 Jeong Seung-ho

프로필 _ 27페이지

조명—신호 Shin Ho

연극 〈신의 아그네스〉〈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카프카의 소송〉〈채권자들〉〈대학살의 신〉외

뮤지컬 〈광화문연가〉〈도리안 그레이〉〈뿌리 깊은 나무〉〈잃어버린 얼굴 1895〉외

무용 〈NOT〉〈라벨과 스트라빈스키〉〈찬란〉〈Dromenon〉〈에덴〉외

수상 2015 더 뮤지컬 어워즈 ‘조명상’ 〈뿌리 깊은 나무〉

2014 서울연극협회 ‘올해의 스태프상’ 〈채권자들〉

2014 전국무용제 ‘무대예술상’ 〈십이 후〉

2011 서울무용제 ‘무대미술상’ 〈시간 속의 기적〉

의상—유미양 Yoo Mi-yeong

연극 〈한여름 밤의 꿈〉〈파우스트 I+II〉〈나비스 햄릿〉〈안티고네〉〈도덕적도둑〉〈강아지똥〉외

뮤지컬 〈베니스의 상인〉〈언더 그라운드〉〈카르멘〉〈살짜기 읍서예〉〈아르센 루팡〉〈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청이이야기〉〈스노우맨〉〈쥬데렐라〉〈폴몬티〉〈스펠링비〉〈두드림러브〉〈한여름 밤의 악몽〉〈7인의 천사〉외

창극 〈숙영낭자전〉

수상 2013 더 뮤지컬 어워즈 ‘의상상’ 〈살짜기 읍서예〉

음악—김요찬 Kim Yo-chan

프로필 _ 17페이지

분장—채송화 Chai Song-wha

연극 〈스페셜 라이어〉〈한여름 밤의 꿈〉〈남자총동〉〈미친키스〉〈프랑켄슈타인〉〈주홍글씨〉〈메피스토펬〉〈돈키호테〉〈오이디푸스〉〈도화만발〉〈최막심〉〈짬뽕〉외

뮤지컬 〈헤드윅〉〈윤동주 달을 쏘다〉〈나빌레라〉〈서편제〉〈캣츠〉〈오페라의 유령〉〈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미스터 마우스〉〈벽을 뚫는 남자〉〈마리 앙투아네트〉〈워키드〉〈브로드웨이 42번가〉〈노트르담 드 파리〉〈이블데드〉〈왕세자 실종사건〉〈미녀는 괴로워〉〈오! 당신이 잠든사이〉〈라카지〉〈프리실라〉외

기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폐막식〉외

수상 2014 서울 연극인상 ‘스태프상’ 〈한여름 밤의 꿈〉

2009 더 뮤지컬 어워즈 ‘무대미술상’ 〈미녀는 괴로워〉

소품—김소연 Kim So-yeon

연극 〈트루스트〉〈거미여인의 키스〉〈라이어〉〈비너스 인 퍼〉

뮤지컬 〈알타보이즈〉〈친정엄마〉〈블랙메리포핀스〉〈콩칠팔 새삼육〉

창작가무극 〈가운: 세상의 시작〉

음향—박경훈 Park Kyung-hun

뮤지컬 〈아리랑 판타지〉〈나의 노래〉

콘서트 〈매킷 레인 단독 콘서트〉〈재키즈 전국투어〉〈홍대광 연말콘서트 ‘잘 됐으면 좋겠다’〉〈드림라이프 콘서트〉〈문화비축기지 콘서트〉외

기타 〈2016 찾아가는 자라섬〉〈Dingo 콘텐츠〉외

조연출—권수현 Kwon Soo-hyun

연극 [연출] 〈친구를 만들고 죽이는 방법〉〈지금은 알 수 없어〉〈12인의 고상한 사람들〉〈가족〉〈나는, 바람〉〈장롱 속의 남자〉

[조연출] 〈굴레방다리의 소곡〉〈보이책〉〈한여름 밤의 꿈〉〈관속매장된 6인의 이야기〉〈카프카의 소송〉〈타이피스트〉〈오! 마이 내 결혼〉

창작가무극 [조연출] 〈신과 함께〉

수상 2014 젊은연극제 청춘프린지 대상 〈장롱 속의 남자〉

조연출—양진영 Yang Jin-yeong

연극 [출연] 〈우리 이제 사돈 아니우과〉〈풀 풀암수다〉〈낯술〉〈들꽃여인 의녀반수 김만덕〉〈제주이야기〉〈저 너머 바람꽃 되어〉〈꿈이로다〉〈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내일도〉〈팔죽할매와 바보호랑이〉〈바다거북이〉외

만드는 사람들

출연

강해진 [이아상뜨](#)
 김한 [제롱뜨](#)
 박가령 [제르비네뜨](#)
 박경주 [실베스트르](#)
 성원 [몰리에르](#)
 양서빈 [아르강뜨](#)
 이수미 [네린느](#)
 이중현 [스카팽](#)
 이호철 [옥따브](#)
 임준식 [레앙드르](#)

스태프

원작 [몰리에르](#) Molière
 각색·연출 [임도완](#)
 무대 [정승호](#)
 조명 [신호](#)
 의상 [유미양](#)
 음악 [김요찬](#)
 분장 [채송화](#)
 소품 [김소연](#)
 음향 [박경훈](#)
 무용지도 [김현우](#)
 조연출 [권수현](#) [양진영](#)
 무대·소품어시스턴트 [고태민](#)
 의상어시스턴트 [최아형](#) [김은진](#)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신승호](#) [김정빈](#)
 무대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오퍼레이터 [김용주](#)
 음향감독·오퍼레이터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최정환](#) [김영주](#) [최소영](#) [최성관](#)
 의상진행 [전요나](#) [신은혜](#)
 분장진행 [크레아](#) [분장_강보경](#) [전소영](#)
 무대제작 [무대사랑_대표](#) [박인석](#)
 의상제작 [my무대의상_대표](#) [유미양](#)
 소품제작 [연스테이지_대표](#) [노주연](#)
 조명장비임차 [루스케이프_대표](#) [강성기,](#)
[코디네이터](#) [정국락](#)
 악기임차 [아이노스_대표](#) [박경훈](#)
 조명팀 [백하림](#) [이재문](#) [김채원](#) [신경배](#) [최길주](#)
[김문숙](#) [김수영](#) [강현석](#) [손민영](#)
 음향팀 [박상준](#) [한동찬](#) [김학준](#)
 영문자막 번역 [한국문학번역원_에퀴코리아](#)
 영문자막 제작·운영 [김건](#)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변정원](#) [최윤영](#) [이승이](#) [김율](#)
 마케팅 [김효진](#)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조영채](#)
 대학생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6기 [김희진](#)
[서효영](#) [이가윤](#) [임소영](#) [정기웅](#) [황지연](#)
 홍보·연습·공연사진 [나승열](#)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인 [에이치디자인_대표](#) [임혜영](#)
 홍보영상 [김신중](#)
[602 STUDIO_대표](#) [김영준](#)
 하이라이트영상 [오슬로프로젝트_대표](#) [이영관](#)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형환](#)
 옥외광고 [킨비즈커뮤니케이션](#)
[문화공장](#) [오감](#)
 홍보물 인쇄 [인타임](#)
 프로그램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보연](#)
 매표안내원 [고은지](#) [김다애](#) [김인혜](#) [김현진](#)
[박민주](#)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안내원 [류혜민](#) [이지예](#) [정해룡](#) [이지은](#)
[빈수진](#) [권은서](#) [김소희](#) [김주빈](#) [김남희](#) [임예은](#)
[김예진](#) [박다연](#) [박선준](#) [신혜주](#) [홍정선](#) [예한비](#)
[이신영](#) [김다빈](#) [신혜원](#) [장동률](#) [유지율](#) [고정운](#)
[강소현](#) [강유석](#) [장지영](#) [채지성](#)
 기획·제작 총괄 [지민주](#)
 프로듀서 [정채영](#)
 제작진행 [김선영](#)
 제작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땀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 이성열 이사 (재)국립극단 예술감독 | 고희경 이사 홍익대학교 교수 |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장 | 조현래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예술감독

이성열

사무국장

오현실

작품개발실

정명주 실장 | 지영림 작품개발·학술 | 안병군 공연자료 관리 | 나수경 청년인턴

공연기획팀

지민주 팀장 |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정채영 심소연 박성호 프로듀서 | 정은서 청년인턴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 최윤영 이승이 변정원 김율 홍보 | 박보영 한나래 김태은 오지수 이정민 김효진 마케팅 |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티켓 | 김나래 김수현 하우스매니저 | 조영채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김무석 팀장 | 신승호 김정빈 무대감독 | 최솔기 홍영진 김혜란 무대제작감독 | 나혜민 무대기계감독 |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음향감독 |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 권라임 이현경 이미현 장도희 김지유 연수단원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이민희 인사·복무·복지후생 | 정병욱 시설·용역·공사 | 박예원 이사회·제도·교육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연구원 | 최은정 예술교육 | 김연지 배규림 작은극장

2019 시즌단원

강해진 김한 김수아 박가령 박경주 양서민 이수미 이원희 이종무 이호철 임준식 장지아 정원조 정세별 조남용 주인영 홍아론



이종무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알리바이 연대기〉



주인영

〈콘서트-동의〉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이수미

〈자기 앞의 생〉
〈빠의 기행〉
〈스카팜〉



정원조

〈자기 앞의 생〉
〈알리바이 연대기〉
〈한여름 밤의 꿈〉



양서빈

〈콘서트-동의〉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장지아

〈갈릴레이의 생애〉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2019년 국립극단과 시즌단원이 함께합니다.



김한

〈자기 앞의 생〉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박경주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괄호 안은 단원들의 출연작입니다.



이원희

〈갈릴레이의 생애〉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정세별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한여름 밤의 꿈〉



홍아론

〈고독한 목욕〉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김수아

〈빠의 기행〉
〈당통의 죽음〉
〈한여름 밤의 꿈〉



임준식

〈고독한 목욕〉
〈콘서트-동의〉
〈스카팜〉



강해진

〈빠의 기행〉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이호철

〈빠의 기행〉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박가령

〈갈릴레이의 생애〉
〈스카팜〉
〈한여름 밤의 꿈〉



조남용

〈빠의 기행〉
〈한여름 밤의 꿈〉



국립극단
SINCE 1950

ONLINE

희곡우체통



하나,

온라인 투고!

playpost@ntck.or.kr

둘,

배우들과 함께 하는
낭독회!

셋,

정식 공연으로 제작!

- 국립극단에서 공연할 창작 희곡을 찾습니다.
- 희곡은 익명으로 온라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낭독회 및 정식 공연은 접수된 작품 중 일부에 한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립극단 02-3279-2259

※ 자세한 내용은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회원 안내 문의 1644-2003

국립극단 친구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우선 예약 서비스 제공
제작공연 최대 할인율 제공

낭만이 깃든 명동예술극장과 서울역 뒤편 빨간 극장
(백성희장민호극장, 소극장 판)

국립극단이 제작하는 수준 높은 연극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곳.
이 공간을 찾는 여러분이 항상 연극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티켓 우선 예약으로 나만의 좌석을 미리 선점하는 기쁨,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보는 즐거움,
1년 중 한 작품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혜택까지.

국립극단 친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구분	연회비(원)	혜택
친한 친구	5만원	혜택 40%할인 (전등급, 4매한) 제작공연 티켓 우선 예약 (2일전 유선예약) 극단 기념품 제공
좋은 친구	10만원	친한친구 혜택 포함 제작공연 1개 작품 초청 (R석 2매/명동예술극장 기준)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누구나 가입 가능

회원 유지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상기 혜택 중 극단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9. 27. - 10. 13.

백성희장민호극장

각색·연출: 이수인

드라마투르기: 우수진

무대: 정영

조명: 성미림

음악: 김은정

의상: 이명아

분장: 김근영

소품: 박영애

음향: 엄태훈

출연:

강지완, 고애리, 김세동,

김수아, 김지숙, 김현,

마광현, 박창순, 백익남,

송은지, 엄태준, 이원희,

이현호, 장승연, 장지아,

주인영, 홍아론

SHINSEGAE
신성애극장
푸른티켓

국립극단 1644-2003 | 인터파크 1544-1555

작. 게오르크 뷔히너

당통의 죽음

Dantons Tod



국립극단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2019. 2.
〈자기 앞의 생〉 관객 의견



극장 주변
제휴 주차장 마련

2019. 7.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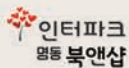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

제휴처

혜택 안내

국립극단 공연 입장권을 소지하시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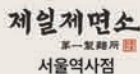
도서 구매시, 10% 할인 및
아메리카노 1+1 쿠폰 증정
(*집지, 특가도서, 중고도서 제외)
북카페 전 메뉴 20% 할인

02-6004-7391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행사/임직원할인/
매니아데이 중복 불가,
성인 2인 이상 시 사용가능

02-779-7871



매콤순살닭튀김小 제공
*식사메뉴 주문 시 테이블 당 1회 제공,
중복할인 및 포장 불가

02-313-1880



호텔28 레스토랑 '월향'
20% 할인

02-774-2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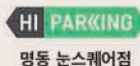
전 메뉴 10% 할인
*타 쿠폰 중복 불가,
할인 카드 중복 가능

02-778-6731



햄버거 단품 구매 시
탄산음료 혹은
아이스커피 M,
따뜻한커피 S 중
1잔 증정
(행복의 나라 제외)
맥카페 구입 시
동일 제품 1+1 증정

070-7017-6404



당일 티켓 소지 시,
1시간 무료 주차 (6,000원 상당)
1시간 이후 초과 주차 시,
10분당 1,000원 부과
(최대 10,000원 부과)

02-3783-4101

예술新세계

신세계면세점과 국립극단이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푸른티켓을 후원합니다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촛불을 들고 등잔 밑을 아무리 밝혀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dong-gil, Jung-gu, Seoul, Korea(04534)

